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소개 받은 울산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김혜란입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에서 모인 반성폭력 활동가 여러분 앞에서 울산시청 3급 공무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니 의미 있는 일이지만 한편 조심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3급인 성희롱 가해자는 파면 징계를 받았지만 이 사건은 끝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12월 여성가족부 성폭력성희롱 신고센터에 울산 광역시 공무원이란 한 사람이 투서를 합니다. 3급 고위공무원의 성희롱이 있지만 조직은 이 사람을 보호하고 징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성폭력성희롱신고센터 컨설팅 단은 울산시청을 방문하고 “피신고인 주변의 직원들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성고충위원회를 개최하고 적절한 징계를 하도록” 권고합니다.

저는 외부조사위원 자격으로 지난 2월 말부터 3월초까지 피신고인 주변의 여러 공무원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피신고인은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고, 수년 전에는 성추행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말한 누구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외부조사위원인 제게 말하는 것만으로 피신고인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특정하여 진술을 해야 하며 그 진술로 가해자인 3급 공무원이 진술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울산시는 2015년에 또 2017년에 그런 사실을 어느 정도 알았지만 징계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 사건을 무마한 적이 있었기에 외부 조사 위원인 제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까닭이겠지요. 가해자는 제대로 징계 받지 않고 진술한 자신들만 드러난다면 가해자와 가해자의 지휘 아래 있는 많은 조직원들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면서 조직 생활을 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피해자는 제발 가해자를 징계하지 말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보지만 말게 해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매우 용의주도하고 집요하여 징계를 받게 된다면 누구 때문인지 찾아내어 피해자를 끝까지

괴롭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피해자는 자신은 공무원을 관둔다면 이야기하겠지만 아직은 관둘 생각이 없어 말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피해자는 가해자가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받게 되면 퇴직할 때까지 오랜 시간 피해자들을 더욱 괴롭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민간기업도 아니고 기간제, 계약직, 비정규직도 아니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자신의 성희롱 피해를 말할 때 사표 쓸 각오를 해야 하다니요. 피해자가 한 둘도 아닌데 이렇게 말 할 용기를 못 내다니요, 이것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 한 명의 피해자가 용기를 냈습니다. 가해자가 해임이나 파면 등의 징계를 받지 못한다 하여도, 그래서 피해자인 자신들이 가해자를 계속 보게 되더라도 어쨌면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받고 징계 후 피해자들을 더욱 괴롭힌다 하여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괴롭히면 그 때 또 말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투서 보낸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다며 투서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조사라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그 이후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피해자들이 말하겠다. 나도 말 하겠다. 이렇게 진술이 이어져 가해자도 조사받기에 이릅니다.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일 없었다 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한편 피해자 주변을 공략하여 협박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서로 손잡고 다독이며 잘 견뎌내었고 마침내 지난 5월 말 시청의 징계를 담당하는 인사위원회는 오랜 시간 반성 없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2차 가해를 계속한, 심지어 관리자인 3급 공무원에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립니다.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했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일터에서 아직도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이들의 용기가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길 바랍니다. 위력에 의

한 성폭력, 피해자가 당당하게 말하며 사는 사회, 우리는 이렇게 만듭니다.